



흥과 정이 넘치는 추석이길

명절 풍경이 늘 같을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추석이다. 전에 없던 폭염 탓에 가슴은 타도 한가위 경기는 늘 풍성하고 넉넉하다. 누군가는 차례 준비를, 누군가는 긴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까 머리를 굴리며 그렇게 가을 한가운데로 걸어간다. 추석장에 흥정이 맞아라지만 올해는 꼭 흥과 정의 맛을 내기를...

/ 세화오일시장에서 제주일보 고봉수 기자

청년 목소리 ‘경청’...“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상봉 의장, 청년 주간 맞아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방문

지역 청년들로부터 의견 청취
“정책적 기반 마련 돕겠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9월 25일 청년 주간(9.20.~9.26.)을 맞아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를 방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귀포시 서흥동에 문을 연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봉 의장과 함께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강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흥동)이 함께했다.

제주도의회 방문단은 청년지원센터 내 오픈라운지와 공유오피스, 면접장 대여룸 등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시설을 둘러보며 이상봉 의장은 “서귀포시 청년지원센터가 수요자 맞춤형 공간으로 거듭나 청년들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들에게 “지역 청년들이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보편적 청년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박현진 위원장, 김기웅 부위원장, 이시내 분과장, 이미진 위원과 함께 청년창업기업인 잇지제주 고시연 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청년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박현진 위원장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곤 한다. 서귀포 청년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담보한 기회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기웅 부위원장은 “이주민으로 5년째 살고 있다. 청년의 정주 여건 조성에도 더욱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잇지제주 고시연 대표는 “지역 청년들, 이주해 온 청년 중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다. 창업을 통해 일자리도 다양해질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 청년 취업 관점을 단순히 일자리가 아닌 창업으로도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장은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다. 도의회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면안내

2

제442회 임시회

3~5

의회 주요 이슈

6~7

함께 합시다

8

사무처 소식

QR코드를 스캔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월간 「도민광장」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 집중”

제442회 임시회 개·폐회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도민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또한 “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4.5% 상승했고, 가공식품 가격도 5% 이상 올랐다. 서민들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

“추석 앞두고 물가 관리 필요
가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시급”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지역 경제 살리는 길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고,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도 악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도정에서는 물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도민 여러분의 내년도 재정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크게 줄었고, 투자 우선 분야로 ‘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감도

높은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상봉 의장은 “제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 자원순환 혁신, 글로벌 위케이션 및 스포츠·해양레저 허브 육성,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AI 융복합 인재 양성,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등이 포함됐다”라며 “제주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도정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해 정부 재정지원 확보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9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폐회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이상봉 의장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을 보면 제주 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천 명을 넘었다”라며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문제가 집중되는 만큼 도정에서 추진하는 현장 조사와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봉 의장은 특히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고 추석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도민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도와 의회,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이 힘을 모아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산 농수축산물과 특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범도민 소비촉진협의체도 더욱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신청하세요~!

탐나는전으로 신청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됩니다

2차 신청 ‘25. 9.22.(월) ~ 10.31.(금)’

지원대상 ‘25.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90%

지원규모 제주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탐나는전(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사용기한 ‘25. 11.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탐나는전
신청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점 전환 필요”

도의회, 9월 9일 토론회 개최
‘제주형 관광개발 모델’ 모색
사회적 합의, 소통·협력 강조

제주 중산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 개발의 방향과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9월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중산간 개발 실태 점검과 제주형 관광개발’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열렸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 토론회의 후속 논의의 장이다. 단순한 개발 찬반 문제를 넘어 중산간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주형 관광 개발 모델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한국관광문화연구원 김윤영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형 관광 개발은 △교육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지역 가치 인식 △이해에 기반한 공동 목표 설정 △사회적 합의의 △합리적 의도를 반영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제주 관광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개발은 ‘자원의 대상화’가 아니라 ‘상향적 가치 제고’와 ‘제주 관광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수용자 중심의 관광개발, 지역 주민이 함께하

는 관광, 지역 자체가 관광자원·관광 상품인 관광 브랜딩, 공동의 목표 설정, 사회적 합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적 관광개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장, 김기현 (주)신화이엔씨 이사, 김익태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장, 이영웅 제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해 제주형 관광개발 모델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의 관광개발은 지난 30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가 필요하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개발은 무엇인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 결과 발표



8월 21~26일 1,500명 대상
4개 문항으로 조사 진행
‘2개 구역’ 개편 선호도 높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문항은 모두 4개이며 △행정 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도민 77.5%가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답한 도민은 10명 중 7명인 ‘69.8%’로, ‘모르고 있다’는 미인 지(30.2%) 응답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행정구역을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0.2%, ‘동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개편하는 의견은 28.4%로 나타났다.

향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히 절차를 이행’(23.0%)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봉 의장은 “도민 여론조사에서 많은 도민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도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웅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도 소개 △성별영향평가 작성 요령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상봉 의장은 “교육을 통해 사무처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성인지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동교육활동 협의체, 지역 주민지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이운,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가 소규모 학교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운영 모색’ 주제의 2025 제주교육 포럼을 통해서다.

이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권순형 소장은 “제주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23년 20여 개 교에서 2035년 50여 개 교로 2.5배 증가할 것”이라며 “면 단위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읍면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향후 15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학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신중을 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앞서 학교 밖에서 학교



교육위원회·교육발전연구회 공동 포럼 9월 19일 개최 읍·면학교 활성화 방안 공유

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부재하다”라며 “읍면 학교 공동교육활동 상설협의체는 학교 외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소규모학교 증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필요 등의 이유라면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공동

교육 과정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고유업무 외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의회가 조례와 예산 외에도 준비해야 할 게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법·제도 외에도 참가하는 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 밖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승식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흐름에 ‘공동운영’을 해법으로

모색해 본다”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협력을 넘어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이며,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이운 대표의원은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방안으로 읍·면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모델을 모색하게 됐다”라며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읍면단위 학교 교육 활동 활성화에 방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모색

농수축경제위 9월 10일 도 동물보호센터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연동갑)는 지난 9월 10일 제 442회 임시회 기간 중 제주시 용강동에 자리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유기·유실 동물과 피학대 동물이 증가함에 따

라 보호·입양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애월읍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과 입양 활성화 사업 추진 상황,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계획 등을 점검하며 제주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발굴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가

단순한 보호·입양 기능을 넘어 교육·인식·개선·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춘 복합적인 복지·문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동물보호센터와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동물보호센터는 도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며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제주가 반려동물 복지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 역량 강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정 역량의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의 우수 정책 비교를 통해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자 마련됐다.

연수 기간 △‘선거 규제와 정치자금 후원회 운영’ 분야의 역량 강화 △혁신 마인드 함양을 통한 적극 행정 교육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을 방문해 지역 소멸 위기 시대 지역 청년의 정착과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원과 직원의 연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리였다”라며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우수사례와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머리 맞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9월 9일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읍)는 지난 9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금리·고물가·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대학교 이호진 교수는 ‘제주지역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자영업자 부채의 경우 1.25배 높다. 모두 금융기관 비중이 크고 금융순부채 상황”이라며 “현재 보유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부채 상환은 가능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는 취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특화형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통한 부채비용 경감 △대출의 목적별로 차별화된 금융 지원 강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

도입 △대출 용도별 대출 규제 차등 적용 △가구 유형별 규제 및 상환 방식의 차등적용 등을 주문했다.

장종호 (주)책임지는 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제주지역 내 읍·면 단위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제주도내 읍면지역은 관광객 중심의 중심상권과 달리 구조적으로 인구밀도와 소비수요가 낮고, 접근성과 인프라에서도 불균형이 존재한다”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소비 확산, 관광객 유출 등으로 전통적 오프라인 소형상권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소멸 위험 상권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장종호 대표는 “스마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라며 “AI다국어 안내·결제 시스템, 스마트 무인 판매대, AR/VR 체험 마케팅, 스마트 패키징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기술은 관광객 친화 서비스, 운영 효율성 제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 상권 공동 성장이란 측면에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읍면지역의 지리·인구·소득 여건에 맞춘 표준화된 ‘제주형 모델’을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읍면형 스마트 상권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위, 어르신들과 ‘일문일답’



8월 28일 서귀포시청서
현장 정책간담회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 국민의힘, 대륜동)는 지난 8월 28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서귀포

시 초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살만하십니까?’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현재 추진 중인 고령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실질적인 보완·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서귀포시 관내 지역별 경로당 임

원진,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했고, 참석 위원들이 이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특정 지역의 버스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과 경로당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등을 주

문했다.

이정엽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관계 부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3특위, 유족회 제주시지부회와 간담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안덕면)는 지난 8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회장 김대욱)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3특별위원회가 유

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하성용 위원장과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참석했다. 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에서는 김대욱 회장과 현영화 역대 회장, 강상옥 상임부회장, 고을용 조천지회장, 김익중 중부지회장, 김홍수 서부지회장, 변일권 애월지회장, 장임학 한경지회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4·3 관련 주

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4·3특별위원회가 4·3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용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유족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4·3특위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여러 현안 중에서도 우선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기한 제주어 ④2

작작 골기다

(관용어) 거침없이 갈기다

“옛날 눈 팡팡 누리는 저슬밤이 질 성가시러운 건 벤소에 가는 일인다,
오줌이사 집무똥더레라도 작작 골겨불민 똥엿주마는 바깥디 신 통시에
강 큰 거 보쟁 후민 잠지패기가 실림팡 잘도 궂어나서마씀”

- 옛날: 옛날

· 팡팡: 펑펑

· 누리는: 내리는

· 저슬밤: 겨울밤

· 질: 제일

· 벤소: 변소
- 오줌이사: 오줌이야

· 무똥, 무똥, 문둥, 문둥:

· 출입구나 그 주변

· 바깥디: 바깥에

· 신: 있는

· 강: 가서
- 보쟁 후민: 볼려고 하면

· 잠지패기: 불기짝

· 실리다, 실이다, 실히다: 시리다

· 잘도: 아주, 매우

· 궂어나서마씀: 좋지 않았었지요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4차 변경)

월 별	회 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1회	총 129일 · 정례회 2회 / 48일 · 임시회 9회 / 81일	본회의 30일 상임위 47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0일	
2월	제435회 임시회	2.18.(화) ~ 2.2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3월	제436회 임시회	3.18.(화) ~ 3.25.(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437회 임시회	4.4.(금) ~ 4.23.(수) (2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6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438회 임시회	5.23.(금) (1일)	본회의 1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6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6.10.(화) ~ 6.27.(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예결위 6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440회 임시회	7.16.(수) (1일)	본회의 1일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 등
8월	제441회 임시회	8.5.(화) ~ 8.14.(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9월	제442회 임시회	9.9.(화) ~ 9.16.(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443회 임시회	10.14.(화) ~ 10.31.(금) (1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2일 공휴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11.11.(화) ~ 12.10.(수) (30일)	본회의 7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26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45회 임시회	12.15.(월) ~ 12.19.(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3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1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5. 9. 12. ~ 10. 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 ~ 10.11.(토) 30일간 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지속 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강 동 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지난 8월, 제주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중차대한 임무를 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6년 6월 30일로 예정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제주 교육이 나아가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지난 20년간 쌓아온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지난 20년간 교육자치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282건의 교육 특례 조항은 타 시도 교육감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제주교육만의 특색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 제도 일몰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제주 교육자치가 걸어온 길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분석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상임위 기능 강화, 교육행정의 균형 있는 감시, 지속 가능한 제주형 교

육자치 모델의 제도개선 기반 확보 등으로 시대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자치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들을 추진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을 마련한다. 총 세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일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설계한다. ‘제주특별법’ 내 282건의 교육특례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입법, 자치 조직, 교육재정, 교육과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다.

셋째,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함으로써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이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주 교육의 미래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교육자치 특위의 활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자치의 여명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늘 먼저 길을 냈을 때 가장 제주다웠다. 이제 우리는 관망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확장하는 교육자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제주교육의 앞날에 더 큰 관심과 참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차 소비쿠폰 함께 써야 더 큰 힘이 된다

김 연 복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주무관



지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얼어붙었던 지역 상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니 상권이 살아났고, 상권이 살아나니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작은 정책적 지원이었지

만 지역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미치는 불씨가 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때 신청해 기

간 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만 원은 적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에서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가 쿠폰을 사용해 지출한 돈은 가게 사장님의 매출이 되고 직원의 인건비와 생활비가 된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소비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결국 나의 소비는 나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다.

민생 회복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2차 소비쿠폰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속한 사회를 지켜내는 연대의 실천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이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다시 살아나는 민생과 공동체의 희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상생의 힘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일상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조 성 수

서귀포시
소통감찰팀장



최근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은 매우 강조되는 과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

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지점이 조직문화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직문화 개선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직접 참여라는 조건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

직원들이 크고 작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설문이나 소소한 의견 반영 같은 작은 과정이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직원들은 자신이 조직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조직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은 변화를 하나씩 시도하고 있다.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전 부서 운영, 상호 존중 실천 서약, 읍·면 단축 당직제, 청사 내 휴게공간 개선과 폰부스 설치 계획 등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변화다.

크고 거창한 제도 개혁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늘은 나도 도의원”...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체험에
화북동 주민자치회 및 이도2동통장협,
제주북초, 귀덕·납읍초 잇따라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체험에 화북동 주민자치회와 이도2동통장협의회, 제주북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귀덕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가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8월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 화북동 주민자치회(회장 고혁수)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 체험이 열렸다.

이날 위원들은 일일 도의원이 돼 실제 화북동 지역의 현안인 ‘화북동 공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등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을 체험했다.

또한 3분 자유발언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기념한 평화 실천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이날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오늘의 체험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쌓여 민주주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모의의회를 통해 익힌 의사진행 절차와 제도적 이해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자치회 정착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현안에 지속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데 이번 체험이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9월 17일에는 이도2동통장협의회(회장 송태중) 54명이 참석해 모의의회가 진행된 가운데 일일 도의원이 된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지역 관심사인 ‘구남마을 내 주요 도로변 보행자 전용 인도 개설 건의안’을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상봉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의정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 본질과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발의하고 토론해 보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북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25명은 9월 19일 본회의장을 찾아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 체험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실제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 표결시스템을 활용한 투표,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3분 발언에서 ‘4·3의 역사적 의미와 학생들의 역할’ 등 미래세대가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사회 현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 주목받았다.

이날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은 “우리 학생들이 지방 의회 활동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



리 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월 22일에는 귀덕초등학교와 납읍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해 청소년의회 모의의회 의정 체험에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 절차에 맞춰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한편 고의숙 의원과 의회의 기능과 도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성 강화

AI 기술 활용한 자료 분석 기법
실제 행감 사례 중심으로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44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리는 ‘2025 행정사무감사’ 대비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진사회정책연구원 박동명 원장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이해와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료 분석 기법을 공유하

고, 실제 행정사무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맞춰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강의를 통해 의원 모두가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제주도의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예산과 정책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감사를 통해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서 5건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정책 발굴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상 3건, 장려상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항만 데이터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심의 비대면 개최 제안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휴가 재정비 제안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에는 △폐전선류 별도 배출제 시행 제안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설치 지원 제안이 선정됐다.

옴부즈맨 운영위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준)는 9월 22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제4차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옴부즈맨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우수 옴부즈맨 선정 및 시상에 대한 협의

가 이뤄졌다.

안창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옴부즈맨 제도는 현장의 문제와 도민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나 지역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주문했다.